

<화정선행록> 연구*

장 효 현**

I. 머리말	IV. <화정선행록>의 人物 形象
II. <화정선행록>의 書誌	V. <화정선행록>의 作家意識
III. <화정선행록>의 敘事 展開	VI.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후기 장편소설 연구가 최근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화정선행록>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이다. 김기동에 의해 줄거리 소개와 간략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¹⁾ <화정선행록>에 등장하는 보조인물 매홍·매섬에 대한 평가가 다른 장편소설에서의 보조인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한길연에 의해 이루어졌을 따름이다.²⁾ 이 글에서는 <화정선행록>의 書誌 및 서사 전개, 인물 형상, 작가의식 등에 걸쳐 그 특징적인 면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 본 논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2002년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고려대 문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고전문학 전공

1)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1981)

2)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가> 연작을 중심으로 -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1997)

II. <화정선행록>의 書誌

현재 확인되는 <화정선행록>의 이본은

- 1) 정문연(장서각) 소장본. 전 15책 完帙. 표제는 ‘花鄭善行錄’ R35N-000098
- 2) 정문연(장서각) 소장본. 落帙 1책 권 (권~6 및 권8 이하 缺). 표제는 ‘和靜善行錄’ R35N-000094-6
- 3) 러시아 동방학연구소(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장본. 전 15책 完帙. 표제는 ‘和靜善行錄’

의 세 종류가 있다.

문헌 기록으로는 모리스 꾸랑의 『韓國書誌』의 873번에 ‘화정선행록 華鄭善行錄’이 적혀 있으며,³⁾ 가람본 『언문척목록』에도 ‘화정선행록’이 들어 있다.⁴⁾ 가람 이병기의 「조선어문학명저해제」에도 여타의 작품과 함께 이병직 소장의 <華鄭善行錄> 15책이 거론되어 있다.⁵⁾

玩月會盟(雲峴宮 藏 2백 책), 삼국지(洪宅柱 장 39 책), 수호지(" , 35 책), 서유기(李乘直 장 25책, 1책 落), 西廂記(홍택주 장 2책), 西周演義(封祥演義; " , 25책), 西漢演義(" , 16책), 唐傳演義(" , 19책), 南宋義(이병직 장 7책), 大明英烈傳(홍택주 장 8책), 劉氏三代錄(" , 14책), 華鄭善行錄(" , 15책), 明行精義錄(" , 70책), 私恩奇遇錄(" , 7책), 蘇老泉三代錄(" , 2책), 薛仁貴傳("), 張風雲(" , 3책), 蘇賢聖傳(" , 15책), 麟鳳韻(" , 3책), 韓氏壽筵雙龍奇逢(" , 2책), 今古奇觀(" , 8책), 陳泰方傳(" , 1책), 玉蘭奇緣(" , 26책), 取勝樓(이병직 장 2책), 華鄭延錄(" , 50책)

그런데,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에 필사되어 있는 장편소설 목록이나, 19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홍희복의 『第一奇諺』 서문에 들어 있는

3) 모리스 꾸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1994), 301 쪽

4) 강전섭, 「언문척목록 소고」,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중앙문화사(1995), 2027 쪽

5) 『문장』 19호, 1940. 10.

장편소설 목록에는 이 <화정선행록>의 서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화정선행록>의 현존 이본이 적고, 이들 목록에도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화정선행록>의 형성은 장편소설로서는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과 홍희복의 『第一奇諺』 서문이 모든 작품을 포괄한 목록은 아니기에, 그 형성 시기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꾸준한 考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작품의 표제는 이본 및 기록에 따라 각기 ‘花鄭善行錄’, ‘華鄭善行錄’, ‘和靜善行錄’으로 달리 나타난다. <화정선행록>은 자칫 花氏·鄭氏 양 가문에 얽힌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화정선생 충방의 善行’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그 표제로는 ‘和靜善行錄’이 가장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작품의 제목을 <화정선행록>으로 하게 된 까닭이 권5의 끝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산인 화정유는 본디 옥쇼동 슝으로 우연이 왔다가 츠경을 목도하고 신괴코 아름다이 너겨 이에 머므러 이에 선싱괴 문후하고, 그 서괴 화침은 쏘흔 청유 선싱 친족 셔얼인 고로 일괴흔 거술 슬퍼 아름답고 괴이흥과 선싱의 늑흔 절개 송득 꺾타여 종시 청현화직을 물니치고 고현쳐스로 몰세흔를 츠탄햐야 이에 그 슝적을 일워닐시, 서괴 쏘흔 이공주의 아름다오미 황영의 지미 업슨 고로, 서로 일막락 의논하고 전을 일워 슈계화명선행이라 호문 선싱의 도혹대절을 본햐미니, 후인이 엇지 좀 공명문달을 탐햐야 화명선싱 현의고절청심을 효측지 아남죽햐리오.6)

정문연(장서각) 소장본과 러시아 동방학연구소(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장본은 전 15책 완질본으로서, 표기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이본이다. 이 글에서는 정문연(장서각) 소장본을 대본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6) <화정선행록>, 권5, 94-95 면

III. <화정선행록>의 敍事 展開

<화정선행록>이라는 題名은 작품 끝 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화정공주 충효혜의 아버지로서 화정선생이라는 호를 황제로부터 하사 받은 ‘충방의 善行’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화정공주 충효혜는 處士 충방의 딸로서, 남주인공 임창연과 定婚하였으나 화순공주가 賜婚됨으로 해서 자칫 불운한 처지에 빠질 위기에 처한다. 김성광의 劫迫을 피해 물에 투신했다가 남해 용왕에게 구출되고 영주 태보산 니허진인의 문하에 들어가 뛰어난 將略과 道術을 익혀, 장차 전장에서 임창연을 구하고 송나라 仁宗의 양녀가 되어 화정공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임창연에게 賜婚된다. 뒤이어 전개되는 다사다난한 사건 속에서 화정공주 충효혜는 중요한 대목마다 神異한 능력을 발휘해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이런 점에서 <화정선행록>은 실은 ‘화정선생의 선행’이 아니라 ‘화정공주의 선행’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처사 충방의 세 아들과 딸 충효혜, 산림처사 임포의 세 아들인 임창연·임경연·임성연과 두 딸 임성아·임정염, 추밀사 소죽현의 아들 소흥문과 재종제 소경문. 이렇게 充府·林府·蘇府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결구된 점에서 보면, <화정선행록>은 충부·임부·소부의 변영을 구가하는 家門小說의 유형에 드는 작품이라 하겠다. 그러나 <화정선행록>은 등장인물들간의 복잡한 結緣과 離合, 악인형 인물들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宮中과 가정 내의 갈등, 그리고 軍談과 道術의 話素 등이 흥미롭게 삽입되어 복잡하게 전개되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소설 유형이 복합된 장편소설이다.

<화정선행록>의 서사 전개 양상을 큰 단락을 지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화정선행록>의 전체 줄거리가 김기동에 의해 정리된 바 있으나, 人名을 비롯하여 다소 간 오류가 눈에 띈다.

1. 임창연과 충소저의 定婚. 화순공주의 賜婚

宋나라 眞宗 天禧년간에 항주 청성산 옥소동에 임포라는 한 은사가 있어, 서호 처사라 일컬었다. 부인 진씨에게 3자 2녀를 두었는데, 장자 창연이 가장 뛰어나고,

차자는 경연, 3자는 성연이라 한다. 임창연이 13세 되는 해에 중남산에 사는 태허 선생 충방이 찾아와 그 딸 효혜와 정혼을 하고, 玉佩와 玉鶯을 서로 信物로 주고 받는다. 仁宗 즉위 후 벼풀어진 과거에서 임창연이 좌장원으로 급제하여 비서각태우가 되고 소죽현의 아들 소흥문은 우장원에 급제한다. 황제가 임창연을 광화후의 소생인 회순공주의 부마로 간택하고, 임·충 양 처사에게는 退婚하라고 한다.

이 때, 형초 지경에서 교동국이 모반하니 병부상서 소죽현이 자원하여 출전하고 임창연도 자원하니, 황제가 소죽현으로 이부총재 겸 금문대도독 平楚대원수에, 임창연으로 대장군대사도 부원수에 임명해 출전하게 한다.

2. 김성광의 行惡

임포와 정혼하였던 충방은 3자녀를 두었는데, 딸 효혜는 임창연과 정혼하고, 맏며느리는 낭중 적순의 딸을 취하고, 둘째 며느리는 시랑 김환의 딸을 취하였다. 김환이 죽은 후 그 부인 호씨가 두 아들을 의지해 사는데, 장자 성광은 불량하고 차자 성린은 덕이 있다.

김성광이 충효혜를 흠모하고, 그 누이도 성광을 도와 계교를 세운다. 김성광이 일부러 집에 放火하고 충소저를 구출해 주는 척하니, 충소저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다가 연못에 투신하고 侍婢인 매홍·매섬도 따라 투신한다.

3. 허소저의 존재

황제의 명을 따라 임포는 경사로 올라온다.

소죽현·임창연이 교동국을 평정하고 회군할새, 소죽현이 水路로 회군하다가 屍身을 건지는데, 학사 허정유⁷⁾의 딸과 그녀의 시비 황파이다. 허정유가 황제에게 직간하다가 유배를 당하며, 부인과 허소저가 고향인 소주로 내려가 있었는데, 허소저 모친의 조카인 채원중이 허소저를 흠모하여 납치하려 하며, 피하여 달아나다가 강물에 투신한 것이었다. 이에 소죽현은 허소저와 父女之義를 맺고서 회군한 후 데려가겠다 하고는, 그동안 黃陵廟에 몸을 피해 있으라고 한다

7) 그 이름이 앞 부분에서는 ‘허유’로, 뒷 부분에서는 ‘허정유’로 기록되어 있다

황제는 회군한 소죽헌을 西平侯에, 임창연을 이부상서 겸 홍문관 대학사 태자태부로 삼는다. 국혼을 거행하여 임창연이 화순공주를 취해 화순궁에 거하니 금실이 좋다. 임포의 맏딸 성아는 소죽헌의 아들 흥문과 혼인한다. 소죽헌의 딸 월주는 임성아를 따른다.

4. 여성영웅으로서 충소저의 활약

임포는 남문 밖 취벽산에 집을 지어 산다.

이 때에 사천후 유길, 운남왕 연평이 모반하여 협공해 들어오니, 임창연이 平南대원수 제로도총관병, 소흥문이 병부상서 대도독 부원수에 임명되어 출전한다

앞서 충소저와 매홍·매섬이 강물에 투신했으나, 남해 용왕이 구출하여 용궁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고 있다가 육지로 내보낸다. 용왕은 충소저가 천상 문창진군의 짝인 규목랑이 적강한 것임을 안다. 충소저와 매홍·매섬은 영주 태보산 니허진인의 도관으로 인도되어 병법과 도술, 華陀의 묘술을 익힌다 하루는 니허진인이 선계의 인연이 다하였으니 하산하여 陣中에서 득병하여 죽어가는 임창연을 구출하라고 한다. 이 때 출전한 임창연이 敵陣에서 운창법사의 요술에 걸려 죽으니 초혼을 하려고 하는데, 충소저가 나타나 월청도사라 자칭하면서 회생단을 써서 임창연을 소생시킨다. 충소저가 운창법사를 사로잡고 사천후 유길을 죽이니, 운남왕도 항복한다. 임창연은 월청도사가 충소저의 모습과 비슷하여 의심을 품는데, 충소저는 이를 간파하여 밤중에 陣中을 나와 피신한다. 회군하는 길에 남창현에 이르러 소흥문은 황릉묘에 있는 義妹 허소저를 데리러 가고, 임창연이 홀로 회군한다. 황제가 임원수를 서령백, 소흥문은 이부상서 겸 홍문관 대학사, 월청도사를 西平侯로 봉하고, 월청도사의 소재를 찾도록 분부한다. 소죽헌은 추밀사로 승품한다.

5. 충소저에서 화정공주로 상승

한편 陣中을 벗어난 충소저는 산수를 찾아 유람하는데, 자기를 탈취하려던 김성광이 절친한 채원중에게, 허소저가 황릉묘에 머문다는 소문을 알려, 채원중의 무

리가 황릉묘에 있는 허소저를 납치하려고 한다는 密談을 객점에서 듣고는, 먼저 황릉묘로 가서 허소저를 구출한다. 매홍·매섬이 도술을 부려 김성광과 채원중을 육보이고 매를 때린다.

함께 남장을 하고서 허소저를 데리고 상경한 충소저는 外舅가 되는 집금오 장세현을 찾아가, 자신은 충소저의 남동생이고, 허소저는 소경윤이라 속이고서 함께 지낸다. 장세현의 부인 조씨는 황족으로서 황태후의 총애를 입어 의양군주에 봉해진 인물인데, 식견이 매우 뛰어나다. 충소저의 남동생이라고 한 이가 곧 충소저임을 간파하고는 시비 매홍을 불러 추궁하여 충소저의 신원을 확인한다. 이에 조부인이 입궐하여 황태후에게, 전장에서 임창연을 구출한 월청도사가 바로 그의 약혼녀 충소저인데, 지금 자신의 집에 있음을 아뢰다. 황태후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황제가 하교하여 충소저를 양녀로 삼아 화정공주의 직첩을 내리고, 임창연의 우부인으로 맞이하도록 하면서, 화순공주로 하여금 한 살 위인 화정공주를 형으로 섬기도록 한다.

소흥문은 허소저를 찾던 길에 사랑 이현의 딸과 佳約을 맺었으나 혼례는 미루었는데, 이현이 편지를 소죽현에게 올려 혼인을 간청하니 소죽현이 허락한다. 蘇府에서 허소저를 張府로부터 데려온다.

황제는 충방을 황태사 안국공에 봉한다. 화정공주는 임창연과의 관계를 거부한다. 화순공주는 쌍둥이를 낳으니, 아들은 봉린, 딸은 봉희로 이름 짓는다.

6. 여씨 가문의 갈등. 채원중의 行惡

이 때 수년째 謫居하고 있던 허정유가 딸의 溺死 소식을 듣고서 丈人인 여급사에게 자기 아내(여급사의 차녀)의 잘못을 아뢰니, 여급사가 딸을 착거하여 데리고 와서 비실에 가둔다. 여급사의 장녀가 채시중에게 출가하였다가 喪夫하고 홀로 아들 원중을 데리고 사는데, 그 성품이 매우 불량하다. 할아버지 채계윤이 원중을 꾸짖으나 채원중은 祖父를 가두고 금은보화를 훔쳐 도망한다. 전임 우부도어사인 채계윤이 상소하여 손자의 悖戾함을 아뢰니, 황제가 허정유의 무죄를 깨달아 解配시켜 우부낭중을 삼는다. 謫所에서 상경한 허정유는 蘇府로 가서 허소저와 상봉한다. 소죽현이 허정유에게 부인을 다시 맞이할 것을 권하나 받아들이지 않고, 허소

저는 어머니의 일로 근심하여 병세가 위독해진다. 화순공주와 화정공주가 함께 황제와 황후에게, 허소저를 임창연에게 사혼할 것을 간청하나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윽고 허락한다. 황제가 허정유를 불러 허소저를 임창연에게 賜婚하였음을 알리고, 여부인을 데려와 부부가 復合할 것을 권한다. 허소저는 부친에게 모친 용서할 것을 눈물로 호소한다. 여부인이 돌아온 후, 임창연과 허소저의 혼례를 치른다. 임창연은 그동안 잡자리를 거부하던 화정공주와 비로소 동침한다.

7. 이소저를 둘러싼 갈등

임포의 둘째 아들 경연은 좌승상 이항의 딸과 결혼한다. 소죽현의 딸 월주는 충방의 셋째 아들 원경과 결혼한다. 소흥문과 결혼한 임성아 소저가 아들을 낳는다. 앞서 소주에 사는 형부시랑 이현이 소흥문이 그 지역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가 자신의 딸 명아소저와의 혼인을 간청하여 약속을 얻어 낸다. 이현은 본래 부인 표씨와의 사이에 2자녀를 두었는데, 표씨가 일찍 죽은 후, 곽씨를 재취하여 딸을 하나 두었다. 이현이 명아소저로써 소흥문에게 구혼하니 곽씨는 시기하여 여중 취월을 명아소저로 가장시켜 소흥문의 방에 들여보내 信物을 달라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듬해에 이현이 병으로 죽으니, 곽씨는 은자 오백 냥을 받고 이소저를 산동의 富商인 장설영의 며느리로 팔려고 한다. 병든 것으로 가장하고서 이소저로 하여금 묘향사에 가 발원하게 하고는 장설영에게 납치하도록 한다. 이소저가 이 음모를 눈치채고 유모 정과와 짜고 시비 계섬을 이소저로 가장시켜 가마에 타게 한다. 이소저는 유모 정과, 시비 소앵과 함께 남복을 하고 가다가 채원중의 집에 묵게 된다. 이소저는 자신을 이현의 셋째 아들 이운경이라고 소개한다. 채원중은 몸이 아픈 이운경을 위해 나귀를 빌려 주어 타고 가게 하면서, 그 값은 이운경의 집에 가서 형들에게 받겠다 한다. 소흥문과 약혼한 이소저의 소문을 들은 채원중은 이소저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현의 집을 찾아간다. 계섬은 장설영에게 납치되어 가서 이소저의 행세를 하며 그 아들 장섭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가, 우연히 그곳에 찾아 온 김성광과 함께 도망하여 김성광의 아내가 되어 산다. 이현의 집으로 찾아온 채원중을 보고 곽씨가 그 소생 假아소저로써 구혼하는데, 채원중은 명아소

저인 줄 알고 당장에 허락한 후 喪中이므로 후일을 기약하고 돌아온다. 채원중과 김성광은 계섬(남북하여 유청이라 속임)과 함께 경사로 향한다. 채원중을 千金을 걸고 잡는 榜文이 길에 붙어 있으니, 이름을 여원홍이라 한다. 경사에 온 김성광이 옛 집에 머물며 누이(충방의 둘째 며느리)를 불러 계섬을 이소저라고 소개한다. 채원중은 이모⁸⁾ 여부인을 찾아가 숨어 지내며, 임창연의 셋째 부인이 된 허소저를 연모하여 겁취할 틈을 엿본다.

양태사의 손녀 양귀비가 인종의 정궁이며 화순공주의 어머니인 광후와, 귀인으로서 동궁이 있어 서궁후에 봉해진 소후를 시기하여 없애고자 한다. 채원중은 허소저를 겁취하고자 개가죽을 쓰고 잠입하였다가 매홍에게 들켜 크게 욕을 본다. 채원중이 능운자라는 妖徒를 만나 김성광에게 소개하니, 김성광이 양귀비에게 데려간다. 능운자가 채원중의 부탁을 받고 허부인을 납치하러 갔다가, 매홍의 도술에 걸려 혼이 나서 돌아온다.

이 때 蜀의 민심이 흉흉하니, 포증을 서촉초토대원수, 소흥문을 안렴부원수로 삼아 순무케 한다. 장섭이 걸인 행색으로 다니는 소흥문에게 이소저를 찾는 사연을 얘기하니, 이소저는 이부상서요 서촉안렴사로 파견된 소흥문의 정혼녀이니, 소흥문을 찾아가 발원하되, 이소저를 보내 주려다가 도적이 탈취하여 갔다고 아뢰도록 일러준다. 장섭이 소흥문을 찾아가 발원하니 軍功을 세울 인물이라며 막하여 두고 총애한다.

8. 주소저의 존재

소흥문이 西로 향하다가 서주의 태위 주복의 집에 머물다. 앞서 이소저는 유모·소앵과 더불어 경사로 향하다가 산에서 만난 호랑이의 인도를 따라 경사로부터 수천 리 떨어진 서주에 이르고, 태위 주복의 집에 머물게 된다. 주복은 멀리 出遊하고 없는 터에, 근처에 사는 이지강이라는 탕자가 절도사인 외삼촌의 위세를 빌어 주복의 딸 요주소저에게 청혼하니, 두 오빠가 이소저(男服하여 이운경이라 함

8) 작품에서는 ‘숙모’로 기록되어 있으나, 여급사의 장녀가 채시중에게 시집 가 채원중을 낳은 것이고, 여급사의 차녀가 허정유에게 시집 가 허소저를 낳은 것이므로, 채원중에게 허소저의 어머니는 ‘이모’로 표기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에게 요청하여 許婚을 받은 후 이지강의 청혼을 거절한다. 이지강이 분노하여 무뢰배를 동원하여 朱府를 침입하니, 이소저가 주소저를 구하여 도망한다. 이소저와 주소저는 尼姑인 능운자가 웅거하는 山寺에 들어갔다가, 능운자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여 석항에 갇히는데, 포중·소흥문이 나타나 구출하고 산사를 불태운다

채원중이 이현의 三喪 지난 후 소주에 가서 혼례를 올리는데, 추물인 혜아소저를 보고는 행패를 부리다가, 괘씨의 재물 많음을 알고서 初夜를 치르고 경사로 올라온다.

9. 악인들의 발호와 몰락

화정공주와 허소저가 아들을 낳는다. 화정공주는 매홍을 분부하여 蜀에 가서 소흥문을 보호하고 이소저를 구하라 한다. 또 부친 충방에게 궁중의 禍를 방지하도록 한다. 조정에서 設科하매, 김성광·채원중 여원흥으로 행세 이 장원과 탐화로 급제하여, 김성광은 한림학사, 채원중은 한림편수가 된다. 양귀비가 능운자가 준 도봉잡을 음식에 타 황제에게 먹이니, 황제는 양귀비만을 총애한다. 양귀비가 태후와 괘씨의 침소 주위에 요예지물을 묻고는 소후의 짓으로 꾸미니, 황제가 소후와 태자를 冷獄에 가둔다. 능운자가 仙官의 모습으로 나타나 기치창검 가득한 임창연의 집을 幻影으로 보여주며 임창연과 소흥문이 역모를 꾀한다고 황제에게 아뢰니, 蘇府와 화정궁을 뒤져 역모문서와 기치창검을 찾아내고는, 임창연과 소죽헌을 옥에 가두고, 화순공주와 화정공주는 본궁에 가둔다. 구준으로 대원수 김성광으로 초토사, 채원중으로 副使를 삼아 서촉에 가 도적을 막고, 포중·소흥문을 잡도록 한다. 능운자가 소흥문으로 변신하여 대궐을 침입하니, 화정공주의 부작으로 인해 면목이 탄로나 달아난다. 태자가 화정공주의 丹藥을 황제에게 먹여 혼미했던 정신을 돌아오게 한다. 한편 蜀에 가 있던 매홍은 장섭과 함께, 축으로 와 소흥문을 죽이려는 능운자를 사로잡아 함거에 가둔다. 구원수가 포중·소흥문을 잡아 함거에 가두어 경사로 압송한다. 김성광·채원중은 능운자를 구해 내려다 구원수에게 들켜 함거에 갇혀 능운자와 함께 경사로 압송된다. 황제가 능운자의 招辭와 양귀비 시녀들의 초사를 받아 사실이 드러나매, 임창연·소죽헌·포중·소흥문을 모두 풀고 자신의 허물을 크게 뉘우친다. 능운자가 탈출하여 양귀비에게 독약을 먹

이고 끌고 가다가 화정공주에게 사로잡힌다. 양귀비는 독약으로 인해 죽고, 능운자는 효시된다. 김성광·채원중은 북방에 充軍하게 하되, 김성광은 10년 후 放生하게 한다. 김성광은 계섭과 함께, 채원중은 상경한 헤아소저와 함께 北으로 향한다.

10. 充府·林府·蘇府의 번영

임창연은 영릉후에 봉해진다. 임정염(임포의 차녀)과 소경문(소흥문의 재종제)이 결혼한다. 임정염의 성정이 엄숙하여 和樂을 누리지 못한다. 황제가 화정궁을 지을 것을 명하니, 화정공주는 화순궁 좌편의 仙境에 궁을 짓고 은둔하여 살고자 한다. 화정궁 안의 태호에서 船遊하면서 화순공주와 화정공주가 하나가 되어 임성이(임포의 장녀로 소흥문의 부인)와 임창연을 놀리니, 임창연이 노하여 궁녀를 죄주려 하나, 임포가 꾸짖어 家道를 다스린다

이소저(명아소저)와 주소저가 같은 날 소흥문과 결혼한다. 임성연(임포의 三子)과 단경요(옥소동 처사로서 임창연의 스승인 단세경의 딸)가 결혼한다. 임성연이 장원, 임경연(임포의 次子)이 탐화에 급제한다. 소경문이 둘째 부인으로 한고유의 딸을 맞이하나, 한소저도 성정이 엄숙하니, 소경문이 창녀 매영을 얻어 총애하다가 부친에게 笞杖과 냉육에 갇히는 징계를 받는다. 병 든 소경문을 임정염이 간병하면서 금슬이 회복된다.

호왕 한철영이 叛하매, 임창연의 삼형제와 소흥문·소경문이 출전하여 호왕을 사로잡고 백성을 무휼한다. 임창연은 위왕에, 소흥문은 동평후에 봉해진다. 충부·임부·소부의 자녀들이 모두 成婚하여 많은 자녀를 낳고 부귀와 번영을 극진히 누린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임포의 맏아들 임창연과 충방의 맏딸 충효혜(나중에 화정공주가 되는)의 結緣을 중심축으로 하여, 充府·林府·蘇府의 많은 인물 및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갈등을 겪어 나간다. 특히 악인형 인물인 김성광·채원중·양귀비·능운자 등의 行惡이 작품의 서사 전개의 중간 중간에 끼어 들어가 여러 갈등을 일으키며 작품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 악인형 인물들이 한데 결합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가 해결의 대단원에 이르는 양상을 보여준다.

IV. <화정선행록>의 人物 形象

<화정선행록>은 전 15책의 방대한 분량 속에 다양한 인물 群像이 등장하여 서사를 이끌어간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은 선인형의 인물과 악인형의 인물로 크게 대별되며, 또한 보조적 인물들이 이들을 돕게 된다.

작품의 주역인 남주인공 임창연과 여주인공 충효혜, 그리고 남주인공을 가까이에서 돕는 소흥문 등이 선인형의 인물들인데, 이들의 형상은 才德을 겸비하였으며 유교적 이념에도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조선 후기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典型的 주인공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되는 존재는 賜婚妻인 화순공주의 형상이다.

남주인공 임창연은 과거에 급제한 후 황제(송나라 仁宗)의 마음에 들어 화순공주의 부마로 결정된다. 그런데 임창연은 이미 충방의 딸 충효혜와 정혼한 터이기에, 처음에 임창연과 그 아버지 임포는 극히 사양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황제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기에 마지 못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런데 사혼처인 화순공주의 형상은 비할 데 없는 才德을 겸비한 현숙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공주의 鬢髮 용혜 오치 凝형호야 눈이 현황커늘, 팔즈 아미의 덕기 현출호고 추파 甁성은 효성의 말근 빗출 나모라며, 나죽호 거동과 다스호 기운은 양일이 온화호야 만물을 빗초이는 듯, 겸손호난 거동과 네덕호는 괴상이 정신이 취호이고 눈이 어리니 (권2. 83면)

사혼처 삽화는 많은 장편소설에 등장하고 있거니와, 사혼처의 대부분은 교만과 위엄을 내세우다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급기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다른 부인들을 謀害하다가 남편과 媿家로부터 懲治되고 이윽고 悔改하는 식

의 類型性을 보여준다. 사혼처가 선하게 그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구운몽>의 난양공주와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를 대할 수 있을 따름이다. 사혼처가 이렇게 선하게 그려지는 경우, 王權과 臣權과의 갈등은 첨예하게 그려지지 않고 君臣 간의 조화로운 질서가 부각될 따름이며, 그만큼 봉건적 질서의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화정선행록>을 이끌어가는 갈등은 다른 곳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화정선행록>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화정선행록>의 서사적 갈등을 이끌어가는 주 인물은 악인형 인물인 김성광·채원중·양귀비·능운자이다. 그 밖에 교동국과 사천후·운남왕의 모반에 따른 갈등 같은 것들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악인형 인물인 김성광·채원중·양귀비·능운자의 行惡이 일으키는 갈등이 <화정선행록>의 서사 전개에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주 動因이 된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들 악인형 인물들이 한데 결합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김성광은 충방의 둘째 며느리의 남동생이다. 충방이 둘째 며느리로 시랑 김환의 딸을 취하였는데, 김환이 죽은 후 그 부인 호씨가 두 아들을 의지해 사나 장자 성광은 성품이 매우 불량하다. 김성광은 충방의 딸 충효혜를 흠모하여 계교를 꾸미고, 그 누이도 이런 성광을 도와주는데 김성광이 일부러 집에 불을 지르고 소저를 구출해 주는 척하니, 충소저는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다가 연못에 투신하게 된다.

김성광은 이후 채원중과 동류를 이루고 양귀비와도 결탁하여 一國을 濁亂하는 惡行을 계속한다.

채원중은 자기 이모의 딸인 허소저를 흠모하여 劫迫하다가 투신하게 만들며, 황릉묘에 숨어 있는 허소저의 소재를 김성광에게 듣고는 그리로 가 다시 劫取하려 한다. 이같은 채원중의 悖戾함을 그 祖父 채계윤이 꾸짖으니, 조부를 “안아드가 후당의 드리치미 문을 걸”어 가두고 보물을 훔쳐 달아난다.

최노공이 대로대분하야 조부를 엄척하고 손을 불너 명전의 쓸니미 그 죄상을 닐너 슈죄하고 “일과 독주로 고요히 명을 못차 아비 어진 덕과 조선 청덕을 추락지 말나.” 하니, 최공조 원등이 노흔흔 혼아비 엄척을 두리믄 업고 마치 쥬린 범이 늙은 기를 보고 쇼래치고 다라들 곳치 크게 쇼력질너 조부를 업 누르고 발악하니, 공이 놀나고 쏘한 대로하야 쥬먹외로 난간을 쳐 왓 “츠는

난류픽상하는 역지니, 아조 버혀 죽여 후환을 덜리라.” 인훤야 장검을 들고 공
즈를 버히려 하니, 원둥이 표연이 드리드라 조부의 잡은 칼을 아스 더지고 조
부를 안아드가 후당의 드리치미 문을 걸고 뇌외를 뒤여 금은보화를 거두어 싣
고 청녀를 친쳐 도주하미 간 곳이 업슨지라. (권6, 3~4면)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김성광·채원중·양귀비·능운자의 악인형 인물들이 한데
결합하여 작품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들이 광황후와 소후 및 화정공주(충
소저)를 멸하고 허소저를 탈취하고자 함께 모의하는 장면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귀비 더욱 신통이 너겨 천서만단으로 화순궁을 멸하고 태즈와 소후를 제어하
고 덩궁을 다시 업시하고 위를 천하야 누년 품은 혼을 풀고져 하니, 능운이 응
낙고 머물너 한담하다가 슈일 후 은신법으로 나오니, 김 채 낭인이 마자 궤등
쇼문을 무러 저 뜻이 마즈물 암회하야, 김싱이 화당을 설치코져 하미 천만당
부하야, “유인하야 오라.” 하고, 채싱은 “허시를 도적하야 오라” 하니 능운이
녕낙하고 몸이 변하야 한 세 구름이 되야 허부의 문져 니르러 가만이 텃하의
셔 여어 보니 (권9, 4면)

이와 함께, <화정선행록>에서 흥미로운 존재가 선인형 인물을 돕고 악인형 인
물을懲治하는 역할로 나오는, 충소저의 侍婢 매홍·매섬이다 매홍·매섬은 처음
부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주인인 충소저와 함께 김성
광의 흥계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뒤 영주 태보산 니허진인에게 도술을 익
힌 후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변모한다.

매홍·매섬이 악한 인물들을 징치하는 역할은 화정공주(충소저)의 명을 따라,
황릉묘에 숨어 있는 허소저를 김성광·채원중의 무뢰배들로부터 보호하는 부분부
터 시작된다. 화정공주(충소저)가 자신을 겁탈하려 했던 김성광과 그의 동료 채원
중이 황릉묘에 숨어 있는 허소저를 劫取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서 자신의 시비인
매홍·매섬을 보내어 두 악인으로부터 허소저를 보호하도록 하는데, 매홍·매섬은
도술로써 김성광·채원중의 무리를 호되게 욱보인다.

훤이 쇼력을 정히 하야 곶오디, “김가 특싱을 오늘날 머리업슨 귀신을 만들고

저 하더니 우리 주인이 명을 역지 못하야 살상을 못하나 혼변 곤욕을 뵈여 한
과 분을 설하리라. 텃디일월은 츠 낭인의 가살지죄를 아라실지니 쇼비 미홍
미섬의 당돌하를 용사하쇼셔.” 제적을 향하야 진언을 넓고 괴운을 썸으니 모
든 적이 동헌드시 서서 움작이지 못하고 눈이 멀거하니 섯난지라. 홍이 섬을
도라보아 왓, “오날날 형데 명을 밋잡고 이비의 업교를 밋즈와시니 낭적 여당
은 협중이니 처결흔 후 도라보너려니와 혼 변 경계하믄 마지 못하리라.” 섬이
맛당하를 일크르니 홍이 높히 교위에 좌하미 성광을 향하야 즐왓, “너 텃명을
봉승하야 여등의 십악대죄를 다스리미 슈형이 남지 못홀 거시로디 아주의 호
싱지덕이 적즈창싱의 밋츠미 네 목숨을 앗기논 고로 쇼저의 교명을 밋즈와 별
곤을 더으느니 썰리 죄를 밋고 싱심도 아주의 원혼을 비방티 말지니 텃하의
무릎피지 너 일인만 너것더니 채륙의 방즈하미 너의게 느리지 아니니 너와 일
테로 다스리느니 하나리 쇼쇼하나 슬피미 쇼쇼하를 알나.” (권4, 60~62 면)

인륜과 예의를 모르는 김성광과 채원중은 매홍에 의해 ‘人間畜生’으로 격하되
며, 그들을 혼내 주는 매홍·매섬은 “높히 교위에 좌하”여 그들을 꾸짖는다. 매홍
·매섬은 김성광·채원중 일행을 질책하며 황건역사를 불러 첩편으로 때려 皮肉
이 떨어지고 腥血이 낭자한 지경까지 두 사람을 혼내 준다.

언과의 고성왓, “황건녀스논 어디 잇노?” 공중으로서 흥장흔 신령이 느려오
니 머리털이 붉고 푸른낫치 검고 황건을 쓰고 붉은 단령을 입고 프른 썸을 밋
즈지 쓰을고 손의 첩편을 들고 느려와 텃녕하니 낭싱이 정신이 비월하야 밋악
고져 하미 턱이 썸썸하고 도망코져 하미 밋이 짜히 브터시니 혼갓 멀건 두 눈
으로 눈물만 흘니고 서로 도라보고 썰며 울 썸이러니, 신장이 다라드러 이인
을 쓰어 업즈르고 첩편으로 이십식 밋타하니 괴육이 점점이 썸러지고 성혈이
낭즈하니 제적이 황황망극하미 비홀 디 업더니 (권4, 62~63 면)

매홍이 악한 인물들을 징치하는 두 번째 대목은, 채원중이 자신의 이모인 여부
인을 피여 자신의 계획에 방해물이 되는 매홍을 쫓아내고서 허소저를 겁탈하려 하
는 것을 막는 부분이다. 매홍은 채원중의 간계를 미리 간파하고 허소저의 侍婢인
가월로 변모하여 채원중의 음모를 저지한다.

채원중은 자신의 계획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매홍을 허부에서 내쫓았다고 믿고 안심하면서 이모) 여부인까지 술에 취하게 만들어 놓은 뒤, “가인을 오날날 도히 겁취하야 원을 일우리라”며 좋아한다. 그러나 채원중은 뜻밖에 짚어대는 개에 놀라 엉겁결에 마루 밑에 있는 개가죽을 뒤집어 쓰게 된다.

원둥이 규시하고 암희하더니 츠야의 가만이 옷술 버셔 더지고 즈른 옷술 넣고 낮척 개면을 표표히 쓰고 속모을 보치여 여취토록 먹고 가만가만 거러 뒤청스로 말미암아 쇼져팀쇼의 니르니, ‘적년계교를 갈진하야 상스하던 가인을 오날날 도히 겁취하야 원을 일우리라.’ 혼흔즈득하야 스스로 몸이 나라 하늘기 도축하고 가만이 괴여 청말노 괴여 갈 식, 썩 모로논 저 개는 인적을 보고 도적인가 하야 좌우로 니다르 즈즈니 원둥이 민망하야 구석으로 더드며 업디여 보니 마초야 마루 구석의 혼낫 가족케 잇거늘 깃거 등으로셔 느리쁘니 시험하야 괴여 든니미 여러 도적을 직회던 개 체 뉴로 알고 좃지 아니하니 묘하야 생각하디, ‘이 쏘흔 하늘이 썩를 빌너 첫 효험을 보시난도다.’ 하고 몸을 힐욕여 후당 창하의 니르러 괴여올나 업디여 보니 (권9, 17~18면)

이어 온갖 망신을 당하는 풍자적인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허소저를 몰래 겁탈하려던 채원중은 점점 더 우스운 모습이 된다. 채원중은 매홍의 계략과 도술에 의해 “특싱”의 무리로 전락하고, 매홍은 채원중에게 “기심슈졸”할 것을 경계하며 심판하는 위치에 선다.

시비 청녕 후 나오미 싱각 밧 시비 후문을 말미암아 드러가며 서편 후창을 열티니 원둥이 전혀 무심등 문밖의 닷티니 알푸미 심하디 놀나오미 과하디 알픈 줄을 잇고 국숨그려 영금염금 괴여 마루밧트로 괴여 드러가니 과연 황구와 일뉘라. 시비 자셔히 슬피미 업슨 고로 즉시 도라와 부인괴게 안온하시물 고희니 쇼제 비로쇼 쇼축을 장외로 니고 팀금의 고포히 나아가 유모와 시비 다 즈이 겁히 실둥이 고포하야 쇼릭 업스니 원둥이 다시 괴여 황구피를 도도히 미여 넣고 개면을 다시금 만져 쓰고 문 틈으로 여어 방둥의 들미 침침하야 알길이 업스디 앓가 자셔히 보앗는 고로 더드며 쇼져 침금의 나아가니 쇼제 즈

9) 각주 8) 참조

이 갑혀 쇼썸도 업산지라, 심등의 싱각하되, ‘예서 거웠다가는 쇼릭 곳 하면 큰 일이 날 거시니’ 바로 입을 뵈 치 니블의 마라안고 닉다라 브로 화계 우히 가 표도 가즈 밋히 니르러 월식이 여쭈흔 곳의 니블을 히티고 오욕고져 본즉 이 문득 쇼제 아니오 초인을 민드라 의복을 닙혀 단정이 누엇는지라. 속은 즐 알고 황겡하야 급히 득죽 쥬어 덩당을 괴여 드리 닷더니 무어시 발의 걸니거 놀 도라보니 각별 것털 거시 업스니 쏘 괴고져 홀 적 허리 우흐로 조츠 흔 뇓 흥망이 느려져 일신을 엮으니 희음업시 몸이 젓바진지라 전면으로 조츠 햇불 이 조요하며 유피 텨하의 셔고 가월이 것히 섯더라. (권9, 19~21 면)

이 장면은 판소리계 소설 <배비장전>에서 배비장이 방자와 애랑의 궤에 속아 애랑을 취하러 개가죽을 쓰고 가다가 망신을 당하게 되는 장면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¹⁰⁾ 대화가 이어지는 해학적인 장면을 대화 부분을 드러내 인용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유피 쇼릭하여 왈,
 “우리 쇼제 쥬역팔괘를 산 두어 대익이 당전하엿다 하고 몸을 피히시고 초인 으로써 적을 잡으라 하시더니 계교로써 도적을 잡으미 이 문득 슴이 아니니 필연 원등의 뉴특흔 바 구미호의 뉘니 너희 등이 그 쇼리를 상고하라.”
 흔 창뒤,
 “이 증싱이 몸은 개털이오 머리는 개면을 뺏고 쇼리는 업스니 이 무슴 증싱인 고?”
 가월이 곶오되,
 “이논 여이 아녀 동경개니 넷적의도 개가 여의정녕의 흘녀 변해 불츄터라 하니, 그 개면을 쓰미 등한티 안닌 계괴니 용이히 쳐티치 못하리니 가히 신병귀 즐노 하여곰 잡아 음부지옥의 가도리라.”
 원등이 미인을 엇괘라 즈득흔 흥이 시각이 넘지 못하야 이 욕을 당하니 분흥 과 위다름을 이기지 못하야 쇼릭하야 왈,
 “나난 귀신도 아니오 쏘 증싱도 아녀 슴이니 너희 맛당이 샤하야 노호라”
 유피 왈,

10) 한길연, 앞의 논문 참조

“그 증심이 말을 하느피야”
 가월이 쇼왈,
 “유모는 잠잠하라. 스펀이나 증심이나 너 쳐티하리라.”
 인하야 몸을 니러 혼 번 혼드러 미홍이 본면이 도라오논지라. 원둥이 개면 속
 으로 보고 낙담 상흔하여 왓,
 “츠인은 도히 박출하엿더니 어디 잇던고?”
 심식 요란하야 이결왓,
 “홍낭아 원컨디 대즈대비하야 날을 사하라 츠후 악심을 곳치고 불의지스를
 형치 아니하리라.”
 홍이 쇼리를 느작이 하여 왓,
 “이 특심아. 너 당초의 너를 아조 육장을 민들 거시로디 허부인이 일명을 남
 겨 네 집 멸망하믈 보지 말너하미 도히 도라보너여시니 기심슈줄하야 어미 전
 정을 위로홀 비오, 늙은 하나비 여년을 도히 위로홀 거시어늘 다시 요계홍스
 로 감히 이런 거조를 하니 네 망명여심으로 혼번 텃정의 밧티면 너 상급을 타
 고 네 슈형을 보전디 못하리니 이제 너를 죽여 후환을 덜 거시로디 네 인명인
 줄 앓겨 사하느니 삼가 회심슈줄하고 다시 망녕된 거조를 짓지 말나.”
 인하야 진언을 넘하니 공중으로조차 흥녕흔 귀줄이 니르거늘, 홍 왓
 “츠인을 결박하야 원문 밧기 너치고 이후 이곳의 직희여 홍인의 출입을 업시
 하라.”
 귀줄이 청녕하고 원둥을 물이 못나게 결박하야 쓰어다가 원문 밧기 너치니 원
 둥이 너시 업서 반싱반스하엿거늘 맛초아 능운지 오드가 보고 츠악하야 업어
 도라가 김부덕 서당의 노호니 (권9. 21~25 면)

매홍은 또한 西蜀으로 출정한 소홍문을 해치려는 妖徒 능운자를 잡는 대목에서
 뚜렷한 활약을 보인다. 심야에 침입하여 소홍문을 엮고 달아나던 능운자는 그것이
 한갓 草人임을 알고는 내던지고 다시 소홍문을 치려 하는데, 매홍이 나타나 꾸짖
 자, 매홍에 대하여 “충씨 요녀의 적은 비자(婢子) 11)가 축취한다며 큰소리를 친다.
 그러나 결국 매홍의 홍망에 잡혀 경사로 압송된다.

이처럼, 侍婢인 매홍·매섬은 작품 속에서 선인형의 주인공을 돕는 보조인물이

11) <화정선행록>, 권12, 26면

면서 뛰어난 능력과 적극적인 태도로 악인들을 징치하는 역할을 해 나간다.

시비의 신분으로서 작품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다른 존재가 계섬이다. 계섬은 이현의 딸 명아소저를 섬기는 시비로서, 이현의 繼室인 괘씨가 명아소저를 富商 장설영에게 오백 은자를 받고 팔려 하매, 이소저의 복색을 하고서 이소저를 대신한다. 이소저가 괘씨의 음모를 눈치채고 유모 정파와 짜고 시비 계섬을 자신으로 가장시켜 가마에 타게 하니, 계섬은 장설영에게 납치되어 가서 이소저의 행세를 하며 그 아들 장섭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가, 우연히 그 곳에 찾아 온 김성광과 함께 도망하여 김성광의 아내가 되어 산다. 계섬은 김성광을 꾸준히 회개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채원중과 함께 김성광이 큰 죄를 짓지만 황제 전에 나아가 김성광을 변호한다. 계섬의 노력으로 인해 김성광은 免死하고 북방에 充軍하되 10년 후 放生하게 되는 행운을 얻는다. 자신이 이소저가 아니라 그 侍婢인 것을 알리고는 자결코자 칼을 내어 찌르나 주위의 구호로 살아나는데, 황제는 “계섬을 어약방의서 구호하야 병이 흐리거든 忠婢門(忠婢門)을 세워 그 일흠을 표호”¹²⁾도록 명한다.

중세 시기에 신분적으로 낮은 하층 여성인 매혹·매섬·계섬같은 인물을 이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신분 문제와 여성 문제에 대한 작가의 진전된 의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V. <화정선행록>의 作家意識

<화정선행록>은 다양한 인물 군상에 의한 복잡한 서사 전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작품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작가의식은 비교적 선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意識上的 二元性을 <화정선행록>은 잘 보여 준다.

1. 處士의 삶과 將相의 삶

<화정선행록>에는 處士의 삶을 지향하는 의식이 작품의 底流에 깔리면서 동시

12) <화정선행록>, 권12, 101면.

에 將相의 삶을 지향하는 의식이 작품의 表層에 나타난다.

<화정선행록>의 주인공 임포는 실존인물인 宋代의 林逋를 대상으로 하여 허구화시킨 것이다. 임포는 錢塘 사람으로서, 자는 君復이며, 西湖處士로 불리었던 인물이다. <화정선행록>에서도 주인공 임포는 ‘서호처사’로 불린 것으로 나온다.¹³⁾

작품에서 아버지 임포는 處士의 인물형상을 대표하며, 그 맏아들 임창연은 將相의 인물형상을 대표한다.

顯達과 豪奢를 꺼리는 隱逸處士 임포의 모습은 여러 대목에서 보인다. 자기의 맏아들 임창연이 화순공주의 부마가 되어 화순궁에 거처하게 되매 그 호사를 꺼려 戰慄謙退하는 임포의 모습이 누차 묘사된다.

이에 화순궁을 둘러 보미 분당과 난함이 참치아라흐니 공이 공구전놀흐야 바로 보지 못흐니 … 공이 빈미왈, “성당도 궁실의 성흐를 근심흐니 너 엇디 화당난실을 근심티 아니리오. 혼귀를 디디고 빗비 도라와 모려의 흥기히 이시물 원흐고 슈달난창을 오릭 보디 아니리라.” (권2, 35~36 면)

쳐스는 전놀흐야 근심이 슈미를 잠가 겸퇴흐미 날노 더으더라. … 쳐스는 갈싸록 공구전놀흐야 외람흔 황은을 황감전만흐는 말쌈이 늙고 말그며 엄흐고 숙연흐야 부마의 부공인 줄 알니러라. (권2, 73~76 면)

쳐스의 일단 위구흔 심네 날노 고향을 스텝흐야 귀심이 살그트니 (권2, 97 면)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희망했으나,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취벽산에 새 거소를 마련하게 되는데, 완전한 山林處士의 거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스면으로 죽봉고악이 드토아 썩혀나 옥암청벽이 운던의 님니흐야 농이 서리고 봉이 춤추는 듯 만턱이 정취흐고 청늪 흘흘흐야 창창흔 송륙과 총잡흔 녹해 비단피흘 들넛거늘 정묘한 당시 피흘 등지고 물을 넘흐야 반공의 소스시니

13) 김기동은 임포를 ‘林彪’로 誤記하고 있다

소쇄정아하야 이 진짓 은인의 처쇼오 산님의 거체라. (권3, 9~10면)

임포의 謙退하는 자세는 임창연을 부마로 정하는 天子의 詔書를 받고서 올리는 表文에 구구절절히 잘 드러난다.

“미신 님포난 초야의 업덕여 황공돈슈호와 상표호는이다. 성상의 인즈후덕호 샤미 사희팔황의 〽동주졸이 격양의 노리를 화하오나 미신이 불통불민호와 보좌할 덕이 업소오미 닷섯 번 됄죄를 범호오디 성은이 여턴호샤 용스호시니, 기리 남하의 여심을 안과하여 화봉인의 천츄를 효측호옵더니, 천만 의외의 황도를 밧즈오니 불승황공호야 부지쇼향이로쇼이다. 불초즈 창연이 외람이 성은을 입스와 일흠이 천인의 머리지어 장원의 고등호고 다시 작위 손복홀 경계오니, 흥번 드르미 미신이 한출첨비호옵거늘 다시 화순도위를 덩호시니 옥주는 동궁태즈 버금으로 제왕의 위를 가져 텃총과 민망이 텃하의 자자호니 부마를 간선호시미 고문대가의 현인군자를 톡호실디니 창연이 힘혀 분면홍순이 누츄키를 면호오나 이 불과 미인의 흥티를 암연호오니 당부 괴상이 아니옵고 가마피 그리는 좀 죄 죄 잇소오나 엇디 다스의 응문거필을 브라리오. 여츠 용든호미 녀염 쇼쇼 녀즈의 꺾도 불가커늘 황녀는 텃즈의 귀한 가지로 농의지치라. 뉘 감히 봉황가지의 접호는 외람호를 당호리잇고? 신의 누누한 자죄로 감히 상알티 못호여 오직 모옥의 즈겨 침상의 덕죄를 주호옵느니, 복원 성상은 지상 문미의 어진 낭직를 톡호시고 창연의 부직박덕으로 쏘 다시 가실이 이시를 녀렴호쇼셔. 텃너는 텃약이 굿고 빙물의 신이 오라오니 비록 나히 어리플 녀렴호야 네탈 못 일윗시나 츠난 초야 근툼의 고인이어늘 창연이 조고만 일흠이 농문의 걸니고 빈천의 쫓을 움기미 조강 불하호는 죄인이 되온 즉 신이 하면목으로 슝의 아비 되야 슝류의 충슈호오며 님어세상호리잇고? 더욱 무식 불의호 창연을 도항의 용납호리잇가. 신이 쇼위 여츠호오미 딘달호옵느니 성주는 도지를 환슈호시고 다시 부마 간선의 더러이지 말호쇼셔. 텃너는 중시 거절호라 호시면 신이 머리를 농전의 현호고 실신무의호를 원티 아니호는이다.” (권2, 23~26 면)

이러한 處士로서의 삶을 견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임포의 형상과, 出將入相을 거듭하고 두 공주를 포함한 세 부인을 거느려 부귀영화를 극진히 누리는 아들 임창

연의 형상은, 한 작품 속에서 다소 不調和한 모습으로 共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두 형상은 어느 한 면이 다른 면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 강하게 견지된다.

處士로서의 삶을 견지하고자 하며 ‘화정선생’의 호를 황제로부터 하사받는 충방의 형상과, 도술로써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西平侯에 봉해지기까지 하는 여성영웅 충효혜의 형상 또한 임포와 임창연의 대조적 형상과 軌를 같이 한다.

쳐식 몸의 학창의를 착하고 두상의 운니건이 반만 기우렸는디 용피 크게 비속
 혀야 상네롭지 아니터라. (권5, 38면)

이같이 묘사되는 處士 충방은 그 딸 충효혜가 공로를 세워 서평후에 봉해지고 천자의 양녀가 되매 황태사 안국공에 봉해지는데, 끝까지 이를 거절하고자 하니 천자가 이는 나를 인정치 않는 것이라 하여 傳位하겠다고 권문을 나서려 하기까지 한다.

공이 다만 복디읍혈혀야 죽기로써 스양혀온디 상왈, “경이 중시 이러혀믄 짐
 의 박누혀믄 썩리미니 짐이 당당이 어진 종족의 아름다온 이를 글히여 세워
 써 위를 전코져 혀노라.” 혀시니, 쳐식 더욱 황황진눌혀야 다만 디하의셔 청죄
 혀야 법을 안혀시믄 청흔디, 상이 옥교를 두루혀 권문을 나려 혀시는지라 (권
 5, 45면)

이처럼, 處士로서의 삶을 견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임포·충방의 형상과 出將入相하며 비길 데 없는 부귀영화를 구가하는 임창연·충효혜의 형상은, 한 작품 속에서 다소 부조화한 모습으로 共存하면서 시종 강하게 견지된다. 이는 理念과 現實의 兩面에서, 理想的인 모델을 점유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조선 후기 소설 장르를 향유하는 독자의 욕망이기도 할 것이다.

2. 儒敎的 理念과 道敎的 幻想性

<화정선행록>은 儒敎的 理念에 충실한 주인공들의 형상과 그에 따른 이념적 승

리의 서사적 결말이 작품의 뼈대를 이룬다. 그러면서, 작품의 도처에서 삽화를 풍성하게 하며 흥미를 고조시키는 역할로서의 道敎的 幻想性이 交織되어 있다. 이런 면은 여타의 고전소설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나, <화정선행록>의 道敎的 幻想性의 요소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14)

여주인공 충소저는 무뢰한인 김성광의 劫取를 피하려다가 연못에 투신하여 용궁 세계로 들어간다. 남해 용왕과 왕비는 충소저를 보고는 그녀가 천상 문창성군의 천정 원앙채로 인간에 적강한 규목랑임을 알아 본다. 그리하여 수줄을 시켜 용궁으로 인도하여 회복시킨 후, 충소저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해 준다. 백세 인연을 만나고, 천가의 귀한 몸이 될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毒害를 당하기도 할 것이라 예언하면서, 육십년 후를 기약하고 충소저를 용궁에서 떠나 보낸다 15)

물으로 나온 충소저는 동쪽으로 향하여 전진하다가, 영주 태보산 니허진인을 만나게 된다. 니허진인은 충소저와 그 시비 매홍·매섬을 장략과 도술의 달인으로 훈련시키며 역시 충소저의 미래를 예언하고 대비시켜 준다. 충소저가 니허진인을 처음 만났을 때, 니허진인은 이미 과거와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면서 충소저와 매홍·매섬을 훈련시킬 계획을 실천해 나간다. 니허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빈인은 세상을 하직하고 텃하의 오유하니 성명을 감초아 다만 스름이 브르기를 영췌 태보산 니허진인이라 흐느니, 그딤 엇지 듯지 못흐여시리오? 너 깃히 암둡의셔 성슈랄 헤아리미 규목낭이 스년 익이 비상하고 곁흐야 부모동귀를 더지고 희둡의 출몰흐야 이 썻히 뉴우홀 줄 짐작흐미 빈도의게 썻 일년 연분이 잇는 고로 마즈라 왔느니 그딤는 만스물 물외의 더지고 날노 더브러 암둡의 도라가미 엇더흐노 (권3. 52~53면)

그리하여 니허진인이 天理星宿와 地理通運, 六韜三略, 兵法神術과 華陀의 醫術까지 가르친다. 그런데 충소저는 처음에 여자의 도리가 아님을 들어 사양코자 한다.

14) 이 점에서 <옥루몽>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비교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15) <화정선행록>, 권3, 45~49면.

첩이 존스의 지휘를 듯즈오되 혼 일도 녀즈의 힘이 아니라. 장너 첩으로 하여
금 남으의 스업을 나토고 스희팔황을 어허야 진신명공이 되라 하시느니잇가
(권3. 55면)

또한 도술을 익힘으로 해서 모든 조화를 다 부릴 수 있게 되자, 충소저는 깊이
근심하며 詩書에 잠심코자 한다.

쇼제 다만 식이논 디로 비호미 반년지너의 못 통하며 못 썩칠 곳이 업스니 문
득 풍운을 브리고 몸이 화하여 되고져 허미 못홀 조해 업스니 문득 놀나고 근
심하여 왈, “야야의 높은 자취 텨하의 유명하시디 오히려 이긋지 못하시거늘
나는 무용의 녀즈로 이런 남활흔 작시 이시니 야애 아라시면 즐기지 아니시리
니 엇지 다 시험허리오 이리툃 헤아려 침잡고요허야 방술의 뜻을 두지 아니
하고 시셔의 잠심허야시니, 냥 시비 쇼저의 뒤흔 니어 착착히 썩드르미 쏘흔
구외의 너여 니르미 업서 일월을 보닐시, 비쥬 삼인이 낮인즉 시셔의 잠심허
고 근심이 업슨 듯허디 (권3. 56~57면)

이제 將略과 道術을 통달한 충소저와 매홍·매섬에 의해 작품 내에서의 도교적
幻想性은 거침 없이 도처에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와 아울러 악인형의 妖徒로 등
장하는, 사천후 유길을 도와 모반에 가담하는 운청법사(진탁)와, 尼姑로서 도술을
배워 仙官의 모습으로 나타나 황제를 미혹시켜 국가를 濁亂케 하는 능운자는, 神
異하고 妖邪한 술법을 종횡으로 행함으로써 작품 내에서 도교적 환상성을 드높여
준다.

이처럼 <화정선행록>은 작품의 도처에 道敎的 幻想性이 交織되어 있다. 儒敎的
理念에 충실한 주인공들의 형상과 그에 따른 이념적 승리의 서사적 결말이 작품의
뼈대를 이루는 가운데, 도처에 개입되는 이 도교적 환상성은 작품 내에서 삽화를
풍성하게 하며 흥미를 고조시키는 역할로서 기능한다. 그러면서도 道術을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詩書에 잠심하는 충소저와 매홍·매섬의 태도에서 보듯, 그것이 유
교적 이념을 압도하지는 못한다.

이 점 역시 조선 후기 주요한 대중의 독서물로 성립한 소설의 흥미 요소를 담
보하면서, 동시에 조선 후기 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적 이념

에도 충실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이는 또한 조선 후기 소설 장르를 향유하는 독자의 욕망이기도 할 것이다.

VI. 맺음말

조선 후기 장편소설 연구가 최근 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화정선행록>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화정선행록>의 書誌 및 서사 전개, 인물 형상, 작가의식 등에 걸쳐 그 특징적인 면모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재 확인되는 <화정선행록>의 이본은 정문연(장서각) 소장본(전 15책 완질), 정문연(장서각) 소장본(권7의 1책, 낙질),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소장본(전 15책 완질)의 세 종류가 있을 뿐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에 필사되어 있는 장편소설 목록이나, 19세기 전반에 이루어진 홍희복의 『第一奇談』 서문에 들어 있는 장편소설 목록에는 이 <화정선행록>의 서목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화정선행록>의 형성은 장편소설로서는 늦은 시기인 19세기에 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 형성 시기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화정선행록>이라는 題名은 작품 끝 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화정공주 충효혜의 아버지로서 화정선생이라는 호를 황제로부터 하사 받은 ‘충방의 善行’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화정선행록>은 충방의 딸로서 남주인공 임창연과 定婚하였으나, 화순공주가 賜婚됨으로 해서 자칫 불운한 처지에 빠질 위기에 처하다가, 영주 태보산 니허진인에게 뛰어난 장략과 도술을 익혀 장차 전장에서 임창연을 구하고 송나라 仁宗의 양녀가 되는 여주인공 ‘화정공주(충효혜)의 선행’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처사 충방의 세 아들과 딸 충효혜, 산림처사 임포의 세 아들인 임창연·임경연·임성연과 두 딸 임성아·임정염, 추밀사 소죽현의 아들 소흥문과 재종제 소경문. 이렇게 充府·林府·蘇府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결구된 점에서 보면, <화정선행록>은 충부·임부·소부의 번영을 구가하는 家門小說의 유형에 드는 작품이

라 하겠다. 그러나 <화정선행록>은 등장인물들간의 복잡한 結緣과 離合, 악인형 인물들이 끊임없이 일으키는 궁중과 가정 내의 갈등, 그리고 軍談과 道術의 話素 등이 흥미롭게 삽입되어 복잡하게 전개되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소설 유형이 복합된 장편소설이다.

<화정선행록>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은 선인형의 인물과 악인형의 인물로 크게 대별되며, 또한 보조적 인물들이 이들을 돕게 된다. 작품의 주역인 선인형의 인물들은 才德을 겸비하였으며 유교적 이념에도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되는 존재는 賜婚妻인 화순공주의 형상이다. 화순공주는 비할 데 없는 才德을 겸비한 현숙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많은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사혼처의 대부분은 교만과 위엄을 내세우며 다른 부인들을 謀害하다가 남편과 媿家로부터 懲治되는 類型性을 보여준다. 사혼처가 이렇게 선하게 그려지는 경우, 王權과 臣權과의 갈등은 첨예하게 그려지지 않고 君臣 간의 조화로운 질서가 부각될 따름이며, 그만큼 봉건적 질서의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축소되는 한계를 지닌다.

<화정선행록>의 서사적 갈등을 이끌어가는 주 인물은 악인형 인물인 김성광·채원중·양귀비·능운자이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들 악인형 인물들이 한데 결합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와 함께, <화정선행록>에서 흥미로운 존재가 선인형 인물을 돕고 악인형 인물을 懲治하는 역할로 나오는, 충소저의 侍婢 매홍·매섬이다. 매홍·매섬은 처음부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주인인 충소저와 함께 김성광의 흉계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뒤 영주 태보산 니허진인에게 도술을 익힌 후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로 변모한다. 중세 시기에 신분적으로 낮은 하층 여성인 매홍·매섬 그리고 계첩이 소저의 侍婢)같은 인물을 뛰어난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신분 문제와 여성 문제에 대한 진전된 의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화정선행록>에는 處士의 삶을 지향하는 의식이 작품의 底流에 깔리면서 동시에 將相의 삶을 지향하는 의식이 작품의 表層에 나타나며, 또한, 儒敎的 理念에 충실한 주인공의 형상과 그에 따른 이념적 승리의 서사적 결말이 작품의 중심축이 되, 작품의 도처에 삽화를 풍성하게 하며 흥미를 고조시키는 道敎的 幻想性이 交織되어 있다.

處士로서의 삶을 견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임포의 형상과 出將入相을 거듭하고

두 공주를 포함한 세 부인을 거느려 부귀영화를 극진히 누리는 아들 임창연의 형상, 그리고 處士 충방과 그 딸인 여성영웅 충효혜의 형상이 다소 부조화한 모습으로 共存하면서도 시종 강하게 견지되는 것은, 이념과 현실의 兩面에서, 理想的인 모델을 점유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이는 조선 후기 소설 장르를 향유하는 독자의 욕망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 용궁세계의 용왕과 왕비, 영주 태보산 니허진인의 술법, 그리고 충소저와 매홍·매섭에 의해 펼쳐지는 도술, 악인형의 妖徒인 운청법사(진탁)와 능운자에 의한 神異하고 妖邪한 술법 등 도교적 幻想性이 도처에 개입되는 바, 이는 작품 내에서 삽화를 풍성하게 하며 흥미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유교적 이념을 압도하지는 못한다. 이 역시 조선 후기 주요한 대중의 독서물로 성립한 소설의 흥미 요소를 담보하면서, 동시에 조선 후기 사회에 드리워져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유교적 이념에도 충실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며, 이는 또한 조선 후기 소설 장르를 향유하는 독자의 욕망이기도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화정선행록>은 복잡한 서사 전개와 다양한 인물 군상이 그려내는 조선 후기 장편소설의 한 名篇으로 평가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이념과 현실의 兩面에서, 이념과 소설적 흥미의 兩面에서, 그 모두를 점유하고자 하는 조선 후기 소설 작가의 욕망과 독자의 욕망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보기가 될 작품이 아닌가 한다.

참고문헌

- 『花鄭善行錄』, 정문연(장서각) 소장본 전 15책 完帙 R35N-000098
 『和靜善行錄』, 정문연(장서각) 소장본 落帙 1책 권7(권1~6 및 권8 이하 缺) R35N-000094-6
 『和靜善行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장본 전 15책 完帙
 모리스 꾸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서울: 일조각, 1994.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서울: 교학사, 1981.
 강전섭, 「언문척목록 소고」,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서울: 중앙문화사 1995.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 <입화정안>, <화정선행록>, <현씨양옹쌍린가> 연작을 중심으로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서울: 고려대출판부, 2002.

● 투고일 : 2003. 8. 1

● 심사완료일 : 2003. 9. 13

● 주제어(Key words): 화정선행록(Hwa-Jeong-Seon-Haeng-Rok), 가문소설(family novel)